

# 치료사 노구치 하루치카에서 도수치료사 노구치 하루치카로 어느 치료사가 지향한 건강을 위한 사상과 실천의 양상

고바야시 마나에 (리쓰메이칸대학)

## 1. 서론

### 1-1.문제에 대한 관심 및 본 발표의 목적

발표자는 지금까지 근대 일본에서 환자나 그 가족이 어떠한 의식, 방법으로 병에 대처(병을 치료하기 위한 서양 의학 뿐만 아니라 폭넓은 접근)해 왔는지에 대한 실태 해명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병, 삶과 죽음, 건강 등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생각해 왔는지 그리고 실천해 왔는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에 주목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상 누구나 반드시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 및 주변 사람들의 질병, 삶과 죽음, 건강 같은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 중 특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것은 해당 시기의 의료 환경이나 이념, 건강 그 자체의 가치관과 같은 시대적, 개별적인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다이쇼 시대부터 쇼와 시대에 걸쳐 활약하여 현대에 들어서도 일정 지지를 받고 있는 치료 실천 중 하나인 노구치 도수 치료의 창시자인 노구치 하루치카(野口晴哉)에 주목하여 (1) 노구치 하루치카의 사상과 치료 실천(노구치법:野口法, 도수 치료:정체치료 整体療法)을 개관한 후, (2)그 사상과 치료의 실천이 특정 시기를 경계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의 양상을 하루치카의 이론적인 성숙의 시기라고 보고 노구치 하루치카 자신의 치료 현장 (질병에 대한 대처를 하는 현장)에 참가할 때의 자세의 변화와 관련지어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 1-2.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노구치 하루치카는, 크게 2개의 연구 동향의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는 1980년대의 '오컬트 붐(초자연력에 대한 관심의 붐)'에서 시작된 연구 동향으로, 주로 다이쇼 시대의 영술, 정신 요법 붐을 발굴하여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향에서 하루치카는 해당 시기에 유행한 수많은 영술, 정신요법의 하나로 떠올라 개별적인 내용 연구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동향은 앞서 언급한 동향의 과제를 이어받아 하루치카의 개별적인 내용 연구를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특히 하루치카의 중심 사상인 전생(全生)사상,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실천 중 하나인 활원(活元)운동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본 연구 동향에서 주목한 것은 체벽론(體癖論)을 제창한 쇼와29년 (1954)년 이후의 치료 실천 내용이나 그 이론, 사회적 영향의 해명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발표는 이 개별적인 내용 연구 동향 속에 자리 매김과 동시에 동 동향의 분석 시점을 넓히는 시도로서 치료의 현장이라는 공간을 의식하면서 1947년 이전을 포함한 하루치카의 사상과 치료 실천 전체의 활동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루치카가 목표로 한 건강상 및 구축하고자 한 치료의 현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체벽론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사상의 전환 양상을 밝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2. 치료사로서 노구치 하루치카의 자각 및 사상의 확립

### 2-1. 노구치 도수치료 및 노구치 하루치카란

노구치 하루치카는 메이지 44년 (1911년 9월 9형제 중 차남으로 도쿄 우에노에서 태어났습니다. 2세에 디프테리아라는 호흡기 질병을 앓아 제대로 된 발화를 할 수 없었던 하루치카는 9세까지 침사(鍼師)의 백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백부 밑에서 프란츠 안톤 메스머가 주창한 동물자기설(Animal magnetism)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최면술에 관한 책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경험에서 자기 암시나 최면술에 흥미를 가진 하루치카는 테카자시(手かざし: 손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아픈부위를 치료하는 것)로 초등학교 동창의 치통이나 관동 대지진 재해시에 유행한 설사 치료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하루치카는 약12세에 치료사로서의 평판을 쌓음과 동시에 인간의 신체 안에 흐르는 마음의 힘과 마음의 작용을 알게 되면서 치료에 활용할 기술을 개척하게 됩니다.

### 2-2. 노구치 하루치카의 건강관 및 ‘전생(全生)’사상

노구치 하루치카는 활동 초기에 이미 독자적인 건강관이나 치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살리는 것을 중시한 건강관과 ‘전생(全生)’ 사상입니다.

노구치가 이러한 치료 실천을 통해서 목표로 한 것은 ‘전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활기차게 살고 피로하여 잠을 청하듯 죽는 것’<sup>1)</sup>을 지향하는 사상(전생사상 全生思想)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유기(愉氣), 활원운동(活元運動) 등의 정신 요법을 주로 하는 노구치법을 고안해, 15세 무렵부터 치료 활동을 했습니다. 전생 사상을 출발점으로 한 노구치법이 주목한 것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예를 들어 어떤 질병의 증상이나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와는 다릅니다. 노구치는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진 신체 속의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체 내의 힘을 올리고 신체의 기능과 기의 균형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이며, 이 건강관에서 질병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구치에게 병에 걸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설사 병에 걸렸다고 해도 신체가 병에 대해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정 작용과 같은, 신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시켜 병의 경과를 방해하지 않도록 병이 지나갈 때 까지 몸을 가다듬어 두는 것이 노구치에게 치료이며 신체 안의 힘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는 상태로, 이를 건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강관에서 노구치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 제도적으로 우대를 받아 온 서양의학이나 서양의학에 근거한 위생관입니다. 질병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에게 서양의학과 같은 질병 자체를 몸에서 제거하려는 치료는 신체 안의 힘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고 약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주목하지 않고, 함부로 약이나 외과, 위생관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하루치카의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철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작용에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노구치법의 특색이며, 유소년기에 쌓은 지식이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득력으로 사람들에게 치료 활동을 전개했던 치료사로서의 노구치 하루치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3. 도수치료사 노구치 하루치카로의 전환 - 치료를 버리고 도수치료사로

### 3-1. 체벽(體壁)의 발견이라는 전환

전 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구치 하루치카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

1) 노구치 하루치카 「치료라는 것(治療といふこと)」(노구치 하루치카 「치료의 서治療の書」 전생사(全生社) (1977년), 32페이지)

스스로가 지켜보는 신체 상태나 그 신체가 가지는 균형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관찰이었습니다. 15세 때부터 계속된 치료 활동과 신체 관찰을 통해 어느 순간 하루치카가 발견한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신체 운동상의 무의식적 '습관'의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나타나는 방식이나 그 경향을 체계화한 것이 '체벽론(體壁論)'으로, 신체 구조상 발생하고 있는 왜곡을 발견하고, 이 왜곡의 교정을 통해서 신체 안의 힘을 높여 가는 것에 노구치는 주목했습니다. 이 왜곡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도수 치료이며, 이 실천에서는 환자 자신이 몸을 움직이고 자신의 신체와 대화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향되었습니다.

### 3-2. 치료의 힘은 치료를 버린다는 의미

다시 말해 이러한 전환점을 거친 이후 노구치 하루치카가 오랜 세월 구축해 온 치료 현장에 변화가 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하루치카는 실제로 '치료사'라는 자칭을 버리고 '도수치료사'라고 자칭하게 됩니다. 하루치카는 이 전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리보다 몸 만드는 것이 빠르다"<sup>2)</sup>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전쟁 전의 오치아이(落合)도장 시기가 최고의 전성기였고 치료 기술자로서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치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몸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욱 보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장에 모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리해, 보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에게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바탕으로 조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없고, 타인에게 맡기고 타인에 의지하는 방식이라면 저는 옛날의 치료 기술자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몸 만들기에 마음을 쏟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면 진짜 몸을 쓰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고, 건강을 해쳐 결국 뒤처리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는 백년하청(百年河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략)

생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자연건강유지회(自然健康保持會)를 시작한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문으로는 항상 뒤처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만들기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긴 과정 같아 보여도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료보다 몸을 만드는 것 빠릅니다. 서두르면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 말대로입니다. 40년의 치료기술을 추구한 결과로 얻은 지식이 몸만들기입니다. 생명의 자세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치료보다 밝고 확실한 것입니다.<sup>3)</sup>

하루치카에 따르면 체벽이라는 무의식적인 신체 운동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3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이 제3자의 입장이 도수 치료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전환은 단순한 치료 현장과 관련된 방법의 변화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어떻게 전생(全生)사상에 진지하게 임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하루치카 자신의 문제의식을 파악하여 그

2) 노구치 하루치카 「정체 본래의 길을」 (「노구치 하루치카 저작 전집」 제10권, 전생사(1990년), 978-980 쪽, 초출 : 사단법인 정체협회 발행 『월간전생』 6월호(4호), 1958년 6월 1일).

3) 상동

결과에 도달한 것이 하루치카의 ‘치료’라고 하는 현장으로부터의 벗어난 것입니다. 이는 하루치카의 오랜 시간의 실천과 그 이론의 성숙에 대한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자의 호소에 응하는 치료사로서는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호소에 응하는 치료사에서 벗어나, 환자 자신에 의한 도수 치료의 과정을 지켜보는 도수 치료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하루치카 자신의 치료사, 도수 치료사가 인생에 있어서도, 또 보다 큰 의미로 말하면 치료 현장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환자라는 새로운 환자 모습의 탄생이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 4. 결론 - 전망

본 보고에서는, 노구치 하루치카와 그의 사상, 치료 실천부터 하루치카 자신의 치료 현장에의 개입 방법의 변화에 대해 논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치료의 현장이란 주로 의료 자원이나 지역사회 의료의 구조적인 실태를 가리켜 왔습니다. 이 맥락에서 치료 현장의 주체는 치료사이며, 환자와 그 가족은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치료사, 도수 치료사인 하루치카는 일방적이지 않은 치료 현장 구축을 시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와 같이 치료 현장의 구성 요소로서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하는 작업은 환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 참고문헌

- 西山茂「現代の宗教運動――＜靈＝術＞系新宗教の流行と「2つの近代化」」(大村英昭・西山茂[編]『現代人の宗教』有斐閣(1988年))
- 田邊信太郎『病と社會――ヒーリングの探求』高文堂出版社(1989年)
- 前川理子「野口晴哉における「いのち」の思想――近代的自己實踐からの解放の思想として」(『東京大學宗教學年報』第13号、1996年3月、107-121頁)
- 田野尻哲郎「野口整体の史的変容――近現代日本伝統医学の倫理生成過程」(『医学哲学医学倫理』第27号、2009年10月、1-12頁)
- 田野尻哲郎「活元運動の歴史――野口整体の史的変容」(栗田英彦・塚田穂高・吉永進一[編]『近現代日本の民間精神療法――不可視(オカルト)なエネルギーの諸相』國書刊行會(2019年))
- 野口晴哉『野口晴哉著作全集』第1卷～第10卷、全生社
- 野口晴哉『治療の書』全生社(1951年)
- 野口昭子『回想の野口晴哉――朴齒の下駄』全生社(1980年)

(번역책임자:최선진)